

싱가포르 병원의 경쟁력은 사회 인프라 구축의 결과



글 · 이 철 |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소아과 교수)

‘영어능력’ 이 곧 경쟁력

필자는 싱가포르를 3차례 방문 기회가 있었는데 2번이 병원경영에 관한 교육(Hospital Management Program)을 받기 위해서였다. 5년전의 교육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금년의 두 번째 교육은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에서 이루어졌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는 싱가포르 정부가 교육시장을 개방한 결과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Warton School이 설립한 학교이다. 이번 강의에도 Warton School의 병원경영학의 대가인 Burns 교수를 포함한 미국 교수진과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현지 교수가 참여하였다. Hospital Management Program에는 한국, 중국, 일본외에 동남아시아 등 13개국에서 온 54명의 아시아 병원행정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교육은 아침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강행군이었다. 본 program을 주최한 다국적

회사가 미화22만불을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에 지불하여 이번 교육을 위탁하였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다양한 수업 창출방법을 목격하고,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싱가포르의 교육경쟁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두번의 참석에서 모두 절감한 점은 한국인의 영어 능력에 관한 문제였다. 우리가 미국학회에 참석하여 언어 소통에 장애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활발한 의견개진과 강의내용을 소화 못하는 것은 참석 13개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참석자 뿐이었다. 일본과 우리를 제외한 동남아 각국의 참석자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였다. 세계화를 이루고, 외국 우수기업을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정책은 우선 영어 교육에 의한 언어경쟁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절감하였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이나 조별 토의 시간에 학생전원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다. 5년전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여 교과서를 대신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진정한 IT 강국으로 변한 싱가포르의 교육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과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인터넷의 보급확대로 위안받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IT 강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싱가포르 의과대학에서는 연간 200명의 의사만 배출시킨다. 싱가포르 의대에 불합격하면 옥스퍼드 의대에 간다고 할 정도로 입학생의 수준이 높다. 싱가포르에서는 부족한 의사는 외국에서 수입한다. 외국인 의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싱가포르 의사협회에서는 선진국의 75개 의과대학만을 선별하

여 그 학교 졸업생에게만 싱가포르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싱가포르 의과대학 교육 수준도 세계화시키고, 세계 유수의 의사들을 자국민 건강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自國의료 · 의학수준 자부심 대단

리관류수상이 얼마 전 영국에 갔다가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늑장부리는 영국병원에 부인을 맡길 수 없다”며 싱가포르로 긴급공수해 간 사건이 있었다. 사회주의화한 영국의료와 싱가포르 의료가 대비되면서 싱가포르인의 자국 의료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싱가포르의 의료가 발전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도 우리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 당시 경제검토위원회에서 경제전략을 검토한 후에 경제 전반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0년간 제조업을 장려한 결과 경제의 25%가 제조업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제조업은 더 이상 성장엔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새로운 전략으로 서비스분야를 경제의 제2엔진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보건의료, 교육, 파이낸스, 물류, 관광,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서비스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중의 일부가 필자가 경험한 싱가포르 교육의 세계화 및 경쟁력 강화이고 앞으로 이야기 할 싱가포르 병원산업의 획기적 발전이다.

싱가포르가 유치한 외국인 환자수는 2000년 15만 명에서 2012년에는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하면 GDP가 1%정도 성장하고, 38억달러의 수입이 발생하며, 80만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될 외국

인 진료는 주로 민간병원에 담당하며, 공공병원은 내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병원 병상은 전체 병상의 80%를 차지하고 민간병원은 20%를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이다. 싱가포르 병원들의 재원일수는 45일이고 그 중에서도 민간병원인 래플즈병원은 3일이지만 한국병원의 평균 재원일수는 11일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 중양환자 경우,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듣기 위해 입원하는데 빨리 검사해서 입원 다음날 수술이 가능해야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국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은 이처럼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간에 경쟁을 시킨 결과, 민간의료기관에게 외국환자를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싱가포르의 민간병원은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주식시장에서 자본투자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영리법인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비영리단체로서 운영시 발생하는 관리부실, 낭비, 비효율을 줄여 나갔다. 영리법인화된 민간병원은 세 이해관계자 즉 첫째는 환자, 둘째는 직원, 경영자 및 의사 그리고 셋째는 주주의 상호 도움으로 발전하게 된다. 의사봉급구조는 1)기본급 2)소속 임상과 전체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3)주식에 따른 배당으로 지급된다. 의료장비 구매시에 구매신청자의 책임이 강조되어 100만 달러 짜리 의료장비를 사면 3년 동안 의사 봉급에서 감가상각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장비를 요청할 수도 없지만, 필요한 장비는 병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싱가포르의 또 다른 서비스전략은 외국환자가 싱가포르를 방문한 경우 적어도 4~5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만으로는 세계적 허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서비스분야가 상호보완적으로
도운다. 일례를 들면 민간병원 직원은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보유하여 환자가족에게는 환자가 입원중
인 기간동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고책동 총리가 의료를 health
industry로 선언한 후부터 철저하게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의 차별화를 실시하였다. 필자는 국공립
병원인 Changi General Hospital, 민간병원인 Mount
Elizabeth Hospital, Gleneagles Hospital, Raffles
Hospital 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국공립 병원
은 각 병원 전체 예산의 4-50%를 정부로부터 보조
를 받는다. 기본 병실에는 그 더운 열대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만 돌아간다. 일반
건물 내에는 냉방시설이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
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 그 이
유를 래플즈병원의 루춘용원장에게 질문하였다. 국
립병원의 기준병실에 에어컨이 없는 이유는 병실
료의 80%정도를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이며, 에어
콘있는 병실은 정부가 20%만 지원한다. 돈을 더
내고 상급병실 가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답
변을 하였다. 그러나 민간병원의 VIP 병실은 특급
호텔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나에게는 이런 차별을 받아들이는 싱가포르의 정
부나 국민이 참으로 합리적이라고 느껴졌다. 너무
나 당연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필자도 우리나라
에서 만연하고 있는 위화감이란 단어가 주는 사회
주의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었다.

병원산업 차원 육성책 싱가포르 '타산지역'

싱가포르의 민간병원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래플
즈병원은 신생병원이지만, Gleneagles병원은 오래된

병원이다. Gleneagles 병원은 Parkway Group
Healthcare LTD에 속한 병원중에 하나이다.
Parkway group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부르나이, 인디아에 총 11개 병원을 소유한, 주식시
장에 상장된 싱가포르 제일의 hospital group이다.
Gleneagles Hospital의 홍보영화에는 부분 간이식,
PET장비도입, iMRT 등이 등장한다. 래플즈병원이
유명해진 것은 우리 언론에서 삼 쌍둥이 수술을 보
도하고나서 부터이다. 싱가포르 병원들의 홍보에
등장하는 쌍둥이 분리수술, 간이식수술이나 첨단의
료장비는 필자의 세브란스병원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유수의 대학병원이 이미 시술하였거나 도입되
어 상용하고 있는 기술들이다. 또한 그런 시술료나
촬영료가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대단히 비
싸기도 하다. PET 촬영비용이 세브란스병원의 4배
나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복 받
은 국민이다. 이런 첨단의 시술과 장비를, 정부의
투자나 지원 없이 성장한 민간병원들 덕에, 아주 적
은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얼마전 두바이 정부가 파이낸셜 센터에 의과대
학과 병원을 포함한 헬스케어 시티를 만드는 프로
젝트를 래플즈병원에 제의하였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제의가 오지 않는가? 한국은 제약기술, 바이
어텍 산업이 강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개발 가능성
이 대단히 크다고 외국에서 평가하고 있다. 건강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의료에 대한 투자는 인식하고, 본인 부담은
쥐꼬리만큼 내면서, 결맞지 않게 최상의 의료만 요
구한다. 우리 사회가 의료에 대한 범국민적 적개심
만 고취시키고,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을 때, 싱가포
르는 의료를 시혜차원이 아닌 health industry 차원
에서 육성 발전시킨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